

‘135금성호’ 어선사고 인명구조 및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

-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,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인명구조 및 수색 신속 지시 -

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8일(금)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선망 ‘135금성호(129톤)’어선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.

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해양경찰청과 어업관리단 등 소속기관에 “신속히 사고 선박으로 이동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수색에 최선을 다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
현재, 승선원 27명 중 14명을 구조하고,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이 사고 해역 주변을 수색 중이다.

△ (사고개요) '24. 11.8.(금) 시간미상 제주 비양도 북서방 약 12해리 해상에서 대형선망어선 ‘135금성호’ 침몰

* 총톤수 129톤, 부산 선적, 27명 승선

△ (05시 46분) 「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」에 따라 위기경보 “심각” 발령

△ (05시 50분 현재 피해현황) 27명 중 14명 구조, 13명 수색 중

담당 부서	어업자원정책관	책임자	과 장	임태호 (044-200-5550)
	어선안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강은 (044-200-5526)